

형제의 숲



유키코 노리다케 지음 이경혜 옮김

이 책은 지구를 대하는 방식에서,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환경 그림책이다. 왼쪽과 오른쪽 서로 대비되는 그림을 통해, 우리가 속한 환경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하는지 보여준다. 형제로 보이는 두 남자가 숲의 입구에서 신비로운 소녀와 동물들을 만난다. 필요한 만큼 적정 개발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왼쪽)과 미래를 대비하며 적극적인 개발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오른쪽)을 비교하면서 인간이 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다음 세대의 다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주제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자연의 소중함 느끼기
권장 차시	4차시
대상 학년	3~4학년
관련 주제어	숲, 자연보호, 생태, 환경, 친환경, 공존
교육 과정 연계	국어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도덕 [4도04-01]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인간 생명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작성	창원 전안초등학교 박정윤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선택의 결과에 따른 책임은 우리의 몫

하루가 멀다 하고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기후 위기에 봉착했다, 지구 온도가 1.5도나 올라갔다, 인간이 지구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 등등의 뉴스가 나오고 있다. 환경 문제만큼은 사람들이 방관자 모드를 취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이젠 더 이상 방관자로 지켜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태를 맞이했다. 평소와 같지 않은 산불, 태풍, 홍수 등은 대체로 기후변화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구를 위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 왼쪽 남자는 가능한 자연을 해치지 않고 ‘여기에 있기, 그대로 좋아서’를 선택하고 오른쪽 남자는 ‘다음을 생각’한다면서 집 주변을 거대한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처음 시작은 같았지만 마지막은 전혀 다른 결말이다. 왼쪽 숲은 집 몇 채 말고는 여전히 뻗뻗한 숲을 유지하고 있다. 오른쪽은 숲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규모 도시가 되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숲과 자연에 아파트와 공장이 들어선 경우를 수도 없이 목격해왔다. 잊고 지내던 우리에게 왼쪽 그림은 과거를 기억하라고 우리를 흔들어 깨운다. 우리가 빌려 쓰는 지구를 얼마나 많이 파괴해왔는지 똑똑히 보라고 말해 준다. 이 그림책은 서로 다른 선택의 결과지를 담담하게 보여주면서 섬뜩한 현실을 깨닫게 해준다. 인류 전체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대변하는 듯하다. 자연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는 이와 자연을 이용해서 편리를 쫓는 이, 당신은 어느 쪽 입니까?

■ 학습 목표

-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다.
- 장면을 비교하고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며 그림책을 읽을 수 있다.
- 자연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환경이 달라짐을 알고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지닐 수 있다.

■ 수업 준비

『형제의 숲』은 책 그 자체로 크기에 놀라고 아름다운 색감에 매료된다. 펼친 면의 두 장면을 비교하며 읽는 재미도 있다. 왼쪽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른쪽은 자연을 도구화하는 인간 중심의 삶을 그려냈다.

이 책은 읽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층위로 해석할 수 있다.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을 보여주며 자연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인식하자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또는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가치중립적으로 그림을 그려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읽는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다채롭게 해석할 여지가 많다. 분명한 것은 작가는 읽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계속 질문하고 선택하게 말을 걸어온다는 사실이다.

수업 시간에 『형제의 숲』을 활용한다면 그림을 자세하게 읽는 시간을 오래 가지고 싶다. 그림을 비교해서 읽으며 작가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작가의 의도까지 짐작하는 시간을 가지며 깊이 있게 읽고 싶다. 읽은 후 활동으로 친구들과 생각을 주고받으며 가치를 선택해 보고, 도덕 시간과 연계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본 교안은 4차시로 구성하였지만, 학년과 학급 상황에 따라, 주제 중심 프로젝트의 방향에 따라 차시를 길게 구성할 수도 있다. 다른 그림책과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지구의 날 활동, 기후 위기 대응 생태 전환 교육과 연계하여 읽어줘도 좋겠다.

수업 준비물 도화지, 색사인펜, 색연필

■ 학습 과정

읽기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마음 열기 제목과 표지 살펴보기	2차시
읽는 중	함께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그림 자세히 읽기 작가는 왜? 제목을 다시 짓는다면? 한 줄 느낌 쓰기	
읽은 후	나의 선택은?	1차시
	‘남매의 바다’ 표현하기	1차시

읽기 전

1. 마음 열기

■ 숲을 떠올리기

- ‘숲’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예) 많은 나무가 뽕뽕하게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떠올라요.

키 큰 나무들이 만들어주는 그늘이 떠올라요.

- ‘숲’은 어떤 색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숲에는 나무가 많으니까 초록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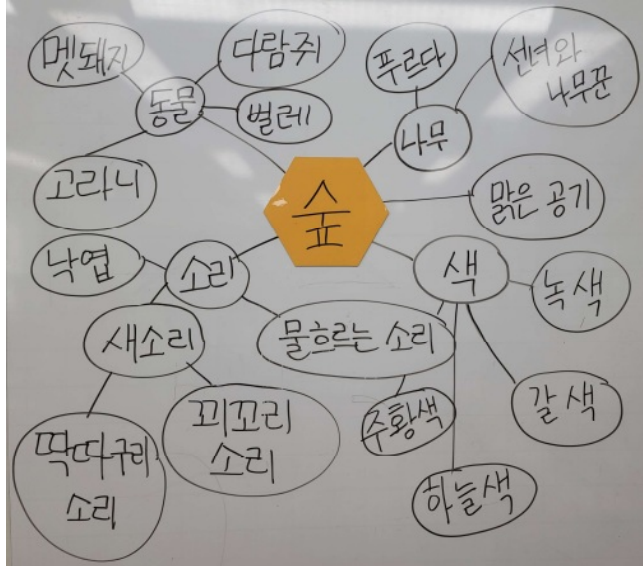
계절에 따라 숲의 색이 바뀌어요. 가을 숲은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이 섞여 있어요.

- '숲'은 어떤 소리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

짹짹, 찌르르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나뭇잎끼리 부딪쳐서 나는 소리



■ 경험 나누기

- 숲에 가 본 적이 있나요? 어떤 느낌이었나요? 숲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예) 숲에 들어가면 상쾌해요.

숲에서 청설모, 다람쥐를 본 적이 있어요.

가족들이랑 지리산 등산간 적이 있는데 울창한 숲과 계곡이 있었어요.

숲에 있는 통나무집에서 잔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2. 제목과 표지 살펴보기

■ 제목과 그림 살펴보기

- 표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예) 위쪽에는 숲, 아래쪽에는 물가를 그렸어요.

두 남자가 모래(흙) 위에 누워 있어요.

나무 사이로 동물들이 보여요.

숲속에 붉은 머리를 한 여자가 보여요.

나무는 크리스마스트리로 쓰는 나무 같아요.

- 표지를 살펴보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봅시다.

예) 제목 『형제의 숲』은 무슨 뜻일까? 두 남자는 형제일까?

초록색 물은 바다일까? 강일까? 아니면 호수일까?

두 남자는 왜 숲에 갔을까? 여행을 왔을까?

Tip. 이 책은 책 표지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림책의 첫 장면을 앞표지, 책등, 뒤표지에 옮겨 놓은 것 같다. 책을 펼쳐 앞표지와 뒤표지를 함께 보여주며 제목과 표지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보통의 그림책은 겉표지를 넘기면 대개 면지가 나타난다. 이 책은 앞 면지 왼쪽에는 작가 소개와 서지정보를 넣고 오른쪽에는 제목이 적힌 속표지가 보인다.

■ 내용 예상하기

-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형제가 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어 나가는 이야기 같아요.

숲으로 여행을 간 두 남자가 서로 다른 일을 겪는 이야기 같아요.

두 남자가 사고가 나서 섬에 표류해서 살아가는 이야기 같아요.

형제가 엄마한테 혼이 나서 섬으로 가출하는 이야기를 상상했어요.

읽는 중

1. 함께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 그림책 함께 읽기

- 그림을 잘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Tip. 그림책을 보여주는 방식은 다양하다. 더 큰 화면으로 그림책을 보여주기 위해 실물 화상기나 빔을 이용하거나 그림책을 스캔한 뒤 TV 화면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림책을 직접 보여 줄 수도 있다. 이 그림책은 펼친 면의 길이가 70cm를 훌쩍 넘을 정도로 크기가 크다. 한 손에 들고 책을 읽어주려면 팔을 쭉 뻗어야 한다. 하지만 그림책의 판형이 커서 아이들 가까이에서 직접 보여주기에 유용하다. 아이들은 가까이에서 그림책을 직접 보며 빨간색과 녹색의 대비되는 색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 펼친 면의 왼쪽, 오른쪽 장면 비교하며 읽기

-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비교해 봅시다.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 왼쪽 장면에는 있고 오른쪽 장면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 오른쪽에는 있고 왼쪽에는 없는 것을 찾아봅시다.

■ 이어질 장면 예상하며 읽기

- 뒤이어 어떤 장면이 나올지 예상해 봅시다.

Tip. 이 책은 왼쪽과 오른쪽 배경은 같고 등장인물이 다르다. 왼쪽에는 검은 머리를 하고 흰 셔츠를 입은 남자, 오른쪽은 노란 머리에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가 등장한다. 왼쪽에는 검은 머리 남자가 숲과 더불어 지내는 삶을, 오른쪽에는 노란 머리 남자가 숲을 이용하는 방식을 그려 비교해서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 전개 방식을 살려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식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다. 먼저 펼친 면 두 장면을 동시에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바뀌어 가는 숲의 모습과 두 인물이 숲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며 읽는 재미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왼쪽 검은 머리 남자의 삶의 방식을 먼저 읽은 뒤, 오른쪽 노란 머리 남자의 삶의 방식을 따로 읽는다. 다시 처음부터 전체 펼친 면을 읽으며 두 인물의 삶의 태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본 교안에서는 그림책을 차례로 읽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한다.

예)

	<p>▶ 왼쪽에는 빨간 머리 여자와 남자가 나무로 함께 집을 짓고 있어요. 오른쪽은 여러 사람을 불러서 돌이나 시멘트 등 건축 재료로 집을 짓고 있어요.</p> <p>▶ 왼쪽에는 숲과 동물들이 있지만 오른쪽에는 나무도 거의 없어지고 동물들도 사라졌어요. 집을 짓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p> <p>▶ 왼쪽에는 통나무집이 완성될 것 같고 오른쪽은 콘크리트 주택이나 상가가 생길 것 같아요.</p>
--	--

	<p>▶ 왼쪽 남자는 숲에 통나무집을 짓고 텃밭도 가꾸면서 동물과 어울려 지내고 있어요. 오른쪽 남자는 크고 세련된 집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놀고 있어요.</p> <p>▶ 오른쪽에는 아스팔트 도로와 자동차가 있고 왼쪽에는 없어요.</p> <p>▶ 왼쪽 남자는 집 주변에 꽃밭을 만들 것 같아요. 오른쪽 남자는 집을 더 크게 확장할 것 같아요. 주차장을 만들 것 같아요.</p>
	<p>▶ 왼쪽 남자는 가족이랑 통나무집 앞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오른쪽 남자는 많은 사람을 집으로 불러서 파티하고 있어요.</p> <p>▶ 왼쪽은 어둡고 오른쪽은 밝아요. 오른쪽 장면에는 전기 불빛이 환해요. 전등으로 집 주변을 장식했어요.</p> <p>▶ 왼쪽은 조용하고 장작 타는 소리가 들릴 것 같고 오른쪽은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p> <p>▶ 뒤이어 아침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왼쪽은 장작이 다 타고 재가 남은 모습만 보이고 오른쪽은 사람들이 놀고 정리를 하지 않아 집 주변이 엉망으로 변했을 것 같아요.</p>

■ **집작하며 읽기**

- 왼쪽 표현을 듣고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짐작해 봅시다.
- 오른쪽 표현을 보고 왼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짐작해 봅시다.

왼쪽	오른쪽
작은 자리 만들기	넓은 터 잡기
가진 것으로 집짓기	(남들처럼 집짓기)
결과에 감탄하기	(결과를 자랑하기)
(흐르는 강물에서 헤엄치기)	강물보다 더 푸른 물속에 뛰어들기
먹고 살기	(부자 되기)
(목을 스치는 상쾌한 공기를 느끼기)	나무를 알록달록 꾸미기
(여기에 있기. 그대로 좋아서)	다음을 생각하기

- 왼쪽과 오른쪽 글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 왼쪽은 자연과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작은 것에도 감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은 더 멋진 것을 찾으려 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 **내용 확인하기**

- 빨간 머리에 흰 원피스를 입은 소녀는 누구일까요?
예) 여자 친구 같아요.

숲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숲을 지키는 요정이나 여신 같아요.
숲과 자연을 사람처럼 그려서 표현한 것 같아요.

- 두 인물은 어떤 사이일까요?

예) 삶의 태도나 생각이 다른 형제일 것 같아요.

제목은 형제라고 했지만, 친구일 수도 있어요. 머리 색깔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다른 두 사람을 표현한 것 같아요.

2. 그림 자세히 읽기

■ 그림의 특징 이야기 나누기

- 그림의 특징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예) 사계절의 모습을 다 담았어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그리지 않았어요.

모든 그림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렸어요.

왼쪽과 오른쪽 그림의 배경이 처음에는 같았는데 인물의 행동에 따라 점점 달라져요.

장소와 시점에 변화가 거의 없다가 뒤로 갈수록 공간이 확대되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왼쪽은 숲 전체, 오른쪽은 마을 전체를 보여줘요.

- 왜 작가는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고 각각의 이야기를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렸을까요?

예) 두 인물이 숲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려고

그림책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선택하게 하려고

Tip. 책의 구성과 그림의 특징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유도한다.

■ 내가 가고 싶은 장면은?

- 내가 지금 그림책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장면으로 들어가고 싶은가요?

예) 숲속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하는 장면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넓은 집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바깥 경치도 구경하면서 쉬고 싶어요.

저는 눈 쌓인 겨울의 숲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눈사람을 만들고 언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이 부러워요.

■ 내 방에 걸고 싶은 한 장면은?

- 그림책의 한 장면을 우리 집에 걸어둔다면 어떤 장면을 뽑을까요?

예) 가을의 숲을 표현한 장면을 걸어두고 싶어요. 숲이 노란색, 붉은색, 초록색으로 아름답고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 우리 가족을 닮았어요.

표지 그림을 걸어두고 싶어요. 초록색과 옅은 갈색이 조화를 이뤄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3. 작가는 왜?

■ 작가의 의도 짐작하기

- 작가는 왜 이 그림책을 만들었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예) 숲과 나무를 파괴하지 말자.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다.

지금이라도 자연환경을 많이 지키려고 노력 하자.
두 남자의 선택 중 지구를 위한 선택으로 누구의 선택이 더 바람직할지 고민해 보자.
자연을 아끼면 행복하고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하면 불행해진다.
아무리 더 부자로 살고 싶어도 욕심내지 말고 자연을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행복한 건 아니며 사람들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다.
자연을 파괴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자연과 어울려 지내는 삶이 더 좋다.

4. 제목을 다시 짓는다면?

■ 제목 다시 짓기

- 그림책의 제목을 다시 짓는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 <자연과 행복>, <함께해요, 다시 생각해요>, <행복한 숲, 파괴의 숲>, <욕심>, <왜 그랬을까?>, <옳은 것을 찾아서>, <동생의 욕심, 형의 배려>, <행복과 불행의 나눔>

5. 한 줄 느낌 쓰기

■ 책을 읽은 소감 쓰기

- 책을 읽으며 든 생각과 느낌을 써 봅시다.

예) 이 책을 읽으니까 숲에 가고 싶고 마음이 차분해진다.

맨 마지막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사람의 선택에 따라 숲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자연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도시가 좋다. 자연이 싫은 건 아니지만 도시의 삶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에서 뛰어놀면 기분이 좋다.

형제의 생각과 행동이 아주 다르다. 검정 옷을 입은 남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흰옷을 입은 남자는 다른 사람, 동물, 자연을 생각한다. 과연 누구의 선택이 옳은지 좀 더 고민해 봐야겠다.

읽은 후

1. 나의 선택은?

■ 나의 가치 표현하기

- 모둠 친구들과 함께 대조되는 두 장면을 보고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 내가 만약 두 남자 중 한 명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선택을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 저는 왼쪽 남자처럼 자연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바로 느끼며 살아가고 싶어요. 왼쪽 남자처럼 살면 탄소를 덜 발생시키고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어요.

저는 오른쪽 남자의 삶을 살고 싶어요. 넓은 집, 좋은 차를 가지면 편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왼쪽 남자처럼 살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Tip. 이 책은 다양한 층위로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이다. 읽는 사람의 연령, 경험에 따라 그림을 다르게 읽을 수 있다. 따라서 토론의 주제와 선택 보기는 학생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찾는 게 좋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최소한으로 훼손하며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 VS 자연을 도구로 보고 사람들의 편의와 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삶', '자연 속에서의 생활 VS 도시에서의 생활'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을 때 신호등 토론이나 가치 수직선 토론으로 자신의 선택을 표현해 봐도 좋다. 토론의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해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자체에 의미를 둔다.

2. '남매의 바다' 표현하기

■ 우리를 둘러싼 자연에 관심 갖기

-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산, 강, 바다, 호수, 폭포

- 여러분은 자연을 어떻게 즐기고 있나요?

예) 바다에서 수영하고 모래놀이도 해요.

- 자연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예)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자연을 더럽히지 않아야 해요.

내가 자연을 즐기고 이용한 만큼 지킬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껴요.

자연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진다면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망가진 자연은 원래대로 회복하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이용해야 해요.

자연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니 무조건 개발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 '남매의 바다' 표현하기

- 『형제의 숲』 형식처럼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서 표현해 봅시다.

-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 4쪽 책을 만듭니다.

- 1쪽에 제목을 써 봅시다. 제목은 사람과 내가 나타내고 싶은 자연환경을 넣어 지어봅시다.

- 펼친 면 왼쪽에는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는 마음을 담고, 오른쪽에는 이용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표현해 봅시다.

- 그림의 아래쪽에는 무엇을 표현했는지 간단하게 한 줄로 써 봅시다.

예) 남매의 바다, 우리들의 바다, 우리들의 강, 자매의 숲속에 있는 강



- 친구들은 무엇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서로의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Tip. 활동 제목은 『형제의 숲』을 패러디해서 '자매의 바다'라고 표현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제목으로 바꾸어도 좋다.

【참고 자료】

1. 숲을 가꾸는 이유 알아보기

#나무를 심은 사람

<https://www.youtube.com/watch?v=j2o0W6kJppA>

EBS 지식채널e "숲이 있었다"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qN1Vuoa9IIs>

[#탄소중립] 숲 가꾸기의 중요성! 우리가 숲을 가꾸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0Lu-QL0dPrc>

#도시 숲 #기후위기 #폭염

도시 숲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https://www.youtube.com/watch?v=Wh1HOOP306Q>

"살아남을 때까지 심는다" 사막을 숲으로 만든 한국인들 | 크랩

<https://www.youtube.com/watch?v=KhookguSRB8>

2. 작가의 다른 작품 찾아보기

『형제의 숲』을 그린 유키코 노리다케의 다른 일러스트 작품 살펴보기

<https://www.yukikonoritake.com/>

Yukiko Noritake

About Personal work Brand Communication Product / Packaging Press Edition **Book** Article Shop Contact

